01 교회소식
“여름성경학교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과 찬양, 기도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배운 아동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소식.

02 생명의 말씀
겸 손
성경 말씀대로 상대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면 힘들 것 같지만 겸손은 오히려 하나님 영광과 축복을 얻는 지름길이 된다.

03 기획특집
온전한 선을 이루기 원한다면?
각 사람의 선(善)에도 단계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선에 이르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까?

04 간증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
목자의 사랑으로 새사람이 된 신태수 형제와 농아였으나 찬양 중에 소리를 듣게 된 태국 와리판 녹셍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697호 2015년 8월 2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2015 아동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는 어린이들에게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으며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 사진은 제8회 만민아동예술제①, 천국 포토존②③, 파워 지저스④, 다양한 학년 활동 시간⑤⑥.아래 사진은 하나님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준 올해의 강사, 왼쪽부터 이수진, 신동초, 이희선, 이미경 목사 그리고 주최 측 아동주일학교 교장 김현진 전도사.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나요?”

지난 7월 26일(일)부터 29일(수)까지 ‘사랑’(요일 4:16)을 주제로 우리 교회 ‘2015 아동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만민의 어린이들은 세상의 어떤 이도 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무한 리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 행복, 감사로 성령 충만했다.

올해 여름성경학교에서도 주님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강사들은 ‘말씀’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달해 주었다. 개강예배 때 이수진 목사는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을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라.”고 전했다.

둘째 날 오전 ‘말씀과 기도 시간’에는 신동초 목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양식 삼고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하는 어린이가 될 것”을 부탁했다.

또 한 가지 만민 어린이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찬양’이다. 셋째 날 오전에는 ‘제8회 만민아동예술제’가 열려 어린이들이 찬양과 워십, 연주, 퍼포먼스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 드렸다.

이번 예술제에는 10개 팀이 참가했는데 대상은 ‘홀리파워워십팀’이, 금상은 ‘김동환과 변화된 형제들’이, 은상에는 ‘프리티팀’이, 동상은 타악기 퍼포먼스 ‘한울림팀’이, 인기상은 ‘엘피스 중창단’이 차지했다. 특히 참가자들 가운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아토피성 피부염, 뇌수막염, 다운증후군 등을 치료받고 건강하게 성장해 영광 돌리는 어린이들이 있어 은혜가 더했다.

셋째 날 오후에는 이희선 목사의 인도로 ‘파워 지저스’가 있었다. 어린이들은 맑고 고운 마음을 사모하며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뜨겁게 뛰며 찬양했다. 또한 넷째 날 오전 이미경 목사의 ‘성령충만기도회’를 통해 영원히 함께하시고자 천국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소망이 넘쳤다.

김유선 아동(9)은 “해마다 여름성경학교가 있어서 좋아요. 특히 찬양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찬양할 때면 깨끗한 마음, 하얀 마음이 더욱 사모 되거든요.”라고 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교사들은 한 달간 작정기도로 준비했고, 부장들은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교구 성도들은 점심식사 배식으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은 보조교사로, 교회 직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서 아동들을 보살피며 섬겨 주었다.

29일(수) 오후부터 30일(목)에는 무안만민교회 앞 바닷가의 짠물이 단물로 된 무안 단물터에서 교사 위로회를 가졌다. 아동주일학교 교사연합회 부회장 홍정렬 권사(48)는 “교사라는 사명을 통해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상급을 쌓을 뿐 아니라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니 더욱 감사해요.”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과 시간과 십자가 체험, 말씀 골든벨 등 다양한 학년 활동이 진행됐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잠자리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성전 곳곳은 천국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놀이와 간식코너, ‘목자의 성’ 3D 상영관, 천국 포토존 등으로 꾸며져 어린이들에게 행복을 주었다.

한편 여름성경학교는 GCN 방송(www.gcntv.org)을 통해 전 세계에서 함께했으며, 광주, 마산, 구미 등 지교회에서도 참석했다.

겸손

당회장 이재록 목사

"…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10)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처럼 사람은 인품이 닦여지면 닦여질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이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비춰 보아도 합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마 18:4)라고 말씀하신 대로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겸손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1. 겸손한 사람의 마음 자세와 축복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하나님에 대해 깨달아 알면 알수록, 하늘보다 더 높고 광대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정녕 자신은 티끌만큼도 못한 존재라는 고백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 해도 자신이 알고 체험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기에 자신의 생각이나 이론을 주장하지 않으며 자아도 철저히 깨뜨려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마음이 되면 상대의 티나 허물이 보이지 않고 다 이해하는 마음이 됩니다.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에서 좋은 점은 열심히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 배우려 하지요. 이런 사람은 상대의 인격을 무시해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설령 상대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면할 뿐이지요. 그래서 주 안에서 겸손히 행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랑을 입게 됩니다.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행복과 영적인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마음이 솜털과 같아서 어떠한 것도 포용하니 많은 사람이 와서 깃들여 쉬기를 원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면 할수록 더욱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2. 겸손한 사람의 특징

1) 입술의 말이 겸손합니다

이는 말로만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상대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의 말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의 잣대로 판단해 상대의 말을 무시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으며, 그 말이 옳지 않아도 즉석에서 그르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깨우치도록 정확한 분별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제시해 줍니다.

또한 자신보다 직분이 낮은 사람이나 어린 소자가 지적해도 기분이 상하지 않고 감사로 받을 줄 알지요.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아도 오히려 감사해하며 "지적하신 내용에 해당하는 점을 제가 잘 깨달아서 신속히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고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잘못한 것을 지적받았는데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상대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그것을 말로 쏟아낸다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우쳐야 합니다.

저는 믿음이 여린 성도님들을 대할 때 그분들을 무시하지 않고 더 사랑과 관심을 보이며 손 한 번이라도 더 잡아 드리곤 합니다. 믿음이 여린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혼들이고, 장차 변화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존귀한 분들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니 저도 그 마음을 느끼며 한분 한분을 사랑하고 섬길 뿐입니다.

이런 마음이 되면 누구와 대화를 해도 말에 실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겸손한 말로써 상대의 마음을 편케 해 주며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함으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칩니다(엡 4:29).

2) 모든 행함에 있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이만한 직분에 이르렀으니 이제 섬김을 받아야지.' 하고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시며 모든 사람, 곧 죄인들까지도 진심으로 섬기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셨으며, 결국은 모든 죄인의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는 온전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진실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성도들을 사랑하며 자신을 낮춰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항상 "나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며 뒤로 물러서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한 대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앞장서 이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앞장선다 해도 마음이 겸손하기에 자신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방식으로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일꾼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섬김과 순종, 사랑으로 하나 돼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앞장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이뤘다 해서 들레거나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됐음을 중심에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고전 15:10).

3) 하나님 앞에, 주님을 대신하는 목자 앞에 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큰 권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뤘지만, 항상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과 주님께 향한 은혜의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고백했지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신을 오히려 사도로 삼아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기에 변함없이 충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됩니다. 항상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때를 좇아 감사의 행함을 보일 줄 아는 사람은 은혜가 떨어지지 않은 증거입니다. 처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나날이 은혜가 더해지면 성령 충만하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뿐 아니라 그 이상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은혜의 고백이 늘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도들을 대할 때도 섬김과 낮아진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지혜가 담긴 잠언 22장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겸손해지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죽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과 축복을 얻는 지름길이 됩니다.

모든 일에 겸손하게 행함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PM
주일 자녀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월/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253-985877 (예금주 이경진)

온전한 선에 이르는 과정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이고 온전한 선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온전한 선에 이르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때
최고의 선을 이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란다.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도 함께 악으로 대응하지 않는 선의 1단계

누군가 나를 욕하고 때리는데도 같이 악으로 대응치 않으면 겉으로는 선하고 온유해 보인다. 그런데 속으로는 억울하고 속상해 마음이 불편하고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면 이는 단지 감정을 눌러 참은 것뿐이다. 이런 경우 악에 맞대응해 싸우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마음이 불편해 눌러 참았다는 것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악이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녕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좇아 행할 수 있어야 한다(잠 8:13).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죄악이 관영해 그만큼 선을 찾아보기 어렵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눅 18:8). 이처럼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작은 불빛도 눈에 잘 띄기에 주 안에서 낙심치 않고 하나하나 선을 행해 나가는 만큼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이끌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음은 물론,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없는 선의 2단계

만일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데, 아랫사람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온전히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그 일을 책임지고자 했는지 점검해 보자.

일단 자신의 탓으로 돌리긴 했지만 마음 한편에 아랫사람을 탓하는 마음이 남아 있어서 자신이 당한 어려움과 함께 감정적으로 책망했다면 결코 선하다고 할 수 없다.

선한 사람은 진심으로 내 탓이라 고백하며 자신을 돌아본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 주시는 것이다(잠 12:2).

또한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책망을 듣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도 책망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함께 마음속으로 책망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정녕 마음이 선한 사람은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에 심한 고통을 받음은 물론, 자신과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라 해도 자신이 도와줄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며 오히려 민망하게 여긴다.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게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며 오히려 감동을 줄 수 있는 선의 3단계

상대가 아무리 악을 발하며 자신을 괴롭고 힘들게 해도 감정을 품지 않고 악으로 생각지 않으며 상대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단계이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니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상대에게 기쁨과 행복, 감동을 주려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항상 이 마음이 나오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선의 2단계에서도 때에 따라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선한 말이나 행함이 나올 수 있지만, 선의 3단계에서는 항상 선으로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악으로 나온 상대의 마음이 선한 입술의 말과 행함에 감동을 받아 그 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따라서 선이란, 단지 착해서 져주고 내어주는 연약한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궤계도 파해 버리는 큰 위력을 지닌 것이다. 선의 2단계가 소극적인 단계라면, 선의 3단계는 악을 선으로 갚는 적극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손익을 먼저 따지지 않으며 희생도 개의치 않는다. 또한 자신에게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어떻게 화평을 이룰까만 생각한다. 선을 행하는 자체가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이러한 희생이 힘들고 어렵게 여겨지지 않는다.

이러한 차원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무엇이든지 마음에 품은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선의 4단계

이 단계는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의 차원이며,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선의 차원이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이유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님을 사랑해 애통하며 뒤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다(사 53:4).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사망이라는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 나무에 달리셨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하셨다.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 잔혹한 채찍에 맞으셨고,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해 고통스런 가시관을 쓰셨다.

또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짓는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함이었다. 죄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최후에는 생명까지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잡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도, 자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병정들도 십자가의 섭리를 깨달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최고의 선을 신속히 이뤄야 할 것이다. 이 차원에 이르면 원수 마귀 사단이 훼방할 수 없으며, 혹여 훼방이 있다 해도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된다. 또한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 마음에 소원을 품기만 해도 응답받을 수 있다.

8 2015 AUGUST
2015.08.02~08.08
주요 프로그램 안내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생명의 씨 1~4
- 우리가 바라볼 것
- 사랑장 4~7
-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
- 3차 영혼육 5~9
- 응답의 공의
- 일곱교회 15~17
- 육체의 결여 1~5
- 요한계시록 강해 8~10
- 에녹 1~2
- 요한일서 강해 38~39
- 신뢰
- 2015년 온 영의 흐름

GCN TV설교
- 순교의 신앙 1 (이수진 목사)
- 근본 마음 (이희선 목사)
- 마음 1 (신동초 목사)
- 사랑과 오해 (정구영 목사)
- 양선 (김수정 목사)
- 연단은 내 탓이다 (조수열 목사)
- 빌라델비아 교회 2 (김승신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33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30
- 창조와 과학 10
- 내 마음의 찬양 7
- 옛날 옛적에 10
- English 2
- 즐거운 요리 19
- 모두 드려요 17

신규 프로그램
- 믿음으로 걸어온 길 1

해외성회 및 교육
- 독일 연합대성회 3
- 회상 3
- 만민하계 수련회 (생방송)

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

나를 변화시킨 그분의 끝없는 사랑

신태수 형제 (30세, 4청년선교회)

▲ 어머니 오영수 집사, 동생 신푸름 전도사와 함께.

저는 평범했던 어린 시절과는 달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후반기가 돼서야 비로소 대학에 가고 성공해서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려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지요.

2004년, 고교 졸업과 동시에 대입 준비를 위해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만민중앙교회에 다니시는 외삼촌의 전도로 어머니와 동생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저는 공부를 핑계로 가끔 주일 예배만 드렸지요.

2007년, 한양대 컴퓨터공학부에 입학해 1차 목표를 이뤘으니 돈을 많이 벌어보자는 계획으로 독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재테크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투자 공부를 했는데 점차 느슨해지면서 게임에 깊이 빠졌습니다. 차마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사채 빚을 내서 생활했지요. 결국 빚 독촉으로 대인기피증에 자살 충동까지 느꼈고, 사채 회사에서 어머니에게 연락하는 바람에 어머니께서 빚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온 후에도 큰돈을 벌어 성공하고 싶다는 제 욕심은 계속됐지요. 신발 장사, 다코야키 장사 등을 하며 나름대로 수입도 생기고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다 해도 배움의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가 될 것 같아 2010년 복학했지요.

이때까지 주일 대예배 정도만 드리던 제가 2011년부터는 저녁예배까지 드리게 됐습니다.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와 동생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2011년 후반기의 일입니다.

어느 날 당회장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인사하는 동생에게 "오빠는?" 하시며 저에 대해 궁금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별 느낌이 없었고 두 번째 물으셨을 때까지만 해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세 번째는 '내가 뭐라고 당회장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찾으시나 …'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난생 처음 당회장님 꿈을 꾸었지요.

당회장님께서 허름한 방에서 앉아 계시는 것조차도 힘들어 벽에 기대고 계셨습니다. 주변 일꾼들이 "당회장님! 그냥 누워서 조금만 쉬세요."라고 간청했지만 "내가 일어나야 하는데…." 하시며 벽을 짚고 비틀비틀 일어나셨습니다. 평소 당회장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느라 기가 소진된 상황 속에서도 사력을 다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왔지만, 꿈을 꾸고 나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때 비로소 그 희생이 저를 위한 것임을 알았지요.

한편 복학한 뒤 치열하게 지식을 쌓으며 물리학, 생물학, 경제학에서 큰 업적을 이룬 학자들을 동경하던 제게 큰 깨우침이 왔습니다. '많은 지식인과 학자들의 연구 업적이 비록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정작 그들이 죽음을 맞이한 순간에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됐는가?' 하는 것이었지요.

그제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주님을 닮은 '영'의 마음을 이루고 싶은 최고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과 주님, 목자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싶었기에 늘 떠올렸고, 성경 말씀대로 사시는 당회장님을 본받기에도 힘썼지요. 제 표정과 말투, 옷차림, 헤어스타일, 걸음걸이 하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꿔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회장님께서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통해 풀어주신 사랑장,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팔복 등 주옥같은 말씀과 여러 교육 말씀들을 무장해 나갔습니다. 영의 마음을 이루는 보물지도 같은 이 말씀들을 온전히 믿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루하루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며 마음의 악을 벗어버리기 위해 노력했지요. 그 결과 2013년 10월, 반석의 믿음에 이어 2014년 4월에는 영의 마음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의 마음을 이루고 나니 근심 걱정이 전혀 없고 늘 평안합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 저는 교회 직원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행복 속에 가나안 성전 시대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며, 변개함이 많고 세상의 것이 마음에 많이 있어 변화되기 쉽지 않던 저를 변화시켜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요, 양 떼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치시는 생명의 목자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참된 의미를 알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 중에 안 들리던 귀가 들렸습니다"

와리판 녹셍 성도
(42세, 태국 치앙라이만민교회)

저는 네 살 때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귀에 문제가 생겨 농아가 됐습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으니 무엇보다 직장생활을 할 때 정상인들과 소통이 안 돼 애로사항이 많았지요.

2013년 4월 14일, 농아 친구의 전도로 치앙라이만민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후 기쁨으로 주일 성수도 온전히 하게 됐지요.

그 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 마음의 소원은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사람들과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015년 2월, 이희선 목사님(만민 전지교회 총지도교사)이 치앙라이만민교회에서 손수건 집회를 인도하신다는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 청력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러던 지난 5월 12일, 손수건 집회(행 19:11~12)에 참석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아가자! 나아가자!"

만민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 귀에서 찬양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닙니까! 매우 흥분되고 감격적인 순간이었지요. 이어진 환자 기도 시간에는 오른쪽 귀에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왼쪽 귀에서도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가 듣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벽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치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